

21세기, ‘빈곤’을 생각해보다: 주관성연구,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도희, 김기운*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Let's Think about 'POVERTY' in the 21st Century : Using the Q methodology of Subjective Study

Doh-Hee Lee, Gi-Woon Kim*

Ph.D Course, Division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빈곤’은 과연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성연구방법인‘Q방법’을 활용하여 빈곤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Type I>은 「Retraction type」으로, 빈곤이란 ‘Retrac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Laziness’ 등으로 ‘되물림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Type II>는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등을 강조하고 있어, 「Individual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Type III>은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No Money’ 등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Basic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Type IV>는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자원분배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관성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1세기 빈곤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 향후 본 연구에서 출발하여 실증연구로의 융합적 확장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 빈곤, 주관성연구, Q방법론, 21세기, 융합적 확장연구

Abstract In this study, 'poverty', which we think in our daily life, started from something. In particular, this study typified the perception of poverty by using the 'Q methodology', a subjective research method, to examine individual subjective opin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ype I> is a 「Retraction type」, and poverty is a problem of 'Reten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and 'Laziness'. <Type II> is a 「Individual Problem type」, and emphasizes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and so on. <Type III> is a 「Basic Problem type」, and emphasizes the basic element of life such as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and 'No Money'. <Type IV> is a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 that emphasizes the problem of resource allocation according to social structural problems. This study typifies the perception of poverty using subjectivity research method on 21st century and expects converging extension study to empirical studies for generalization.

Key Words : Poverty, Subjective Study, Q-methodology, 21st Century, Converging Extension Study

*Corresponding Author : Gi-Woon Kim(hongyunkim@naver.com)

Received June 28,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August 17,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최근 한국영화의 역사적 획을 남긴 영화 '기생충'을 잠시 생각해본다. 영화에서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상생 또는 공생을 원하면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영화는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은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서 공생해야하는 것이라는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빈곤(poverty)', 또는 '가난'의 개념은 더 높은 빈곤선에 주목하던 단계에서,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1]. 이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그리고 다차원적 빈곤 개념으로의 축적과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즉, 빈곤 개념이 소득 빈곤에서 종합적인 기초 생활(Living Standard)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의미한다[1,2] 따라서, '빈곤(Poverty)'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2,3].

Keith Payne(2017)은 그의 저서 'The Broken Ladder'에서 대규모 평준화는 국민을 동원한 대규모 전쟁, 최소 국가 수준의 폭력적 혁명, 나라가 망했다고 표현될 정도의 체제의 붕괴, 엄청난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 등 자산 및 자산구조의 폭력적 파괴가 일어난 경우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4,5]. 여기서 'The Broken Ladder'는 '불평등'의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더 나은 지위와 소득, 건강, 안전, 미래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다리의 아래쪽에 있다면 죽음조차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 자신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다리(status ladder)에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울감, 걱정, 그리고 만성 통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다[4,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

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 이동할 확률이 하향 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즉,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7,8].

한편, 빈곤 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통제에도 어쩔 수 없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절대적 빈곤의 시대를 지난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게 하는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로 설명하기도 한다[1,6,9]. 이러한 빈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의 규모와 실태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다[10,11]. 물론 빈곤정책이 발달하였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복지 정책 또는 사회정책이 발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빈곤층의 규모는 그 나라의 소득 보장과 주거 보장, 의료 보장, 교육 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Social Rights)' 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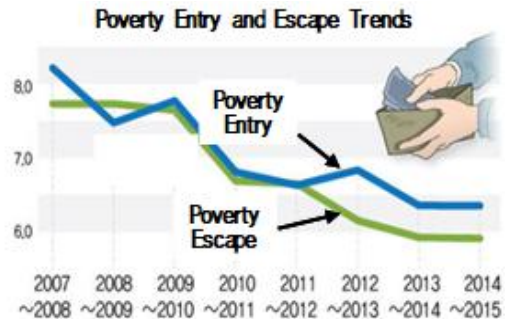


Fig 1. Poverty Trend[12]

2018년 한겨레신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빈곤 탈출률을 발표했다. 신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12].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으로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결과, 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다. 즉,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 → 41.8% → 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 → 30.1% → 28.4%로 반대로 낮아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에 불과하여, 빈곤의 심화 및 고착화 현상을 강조하였다[9,12].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보게 되고, 느낄 수 있는 '빈곤의 그림자(the shadow of poverty)'를 과연,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에 진단의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즉, 일상에서 우리는 '빈곤(poverty)'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간의 내면적 주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인식을 추출하여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관성연구로서의 Q방법론은 '가설발견적 접근(abductive approach)'이라고도 한다[13-15]. 이는 조사과정의 출발을 인간의 주관적인 내면에서 시작하는 이유때문이기도 하다[16,17]. 또한,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추출되는 인식을 '진술문(statement)'이라하며, 이는 응답자의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인 과정을 통하여 최종 Q진술문을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Q진술문은 Q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3,15,18,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연구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빈곤 및 가난에 대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인식을 진단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빈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2.1 주관성연구, Q방법론

주관성연구(subjective study)라고도 하는 'Q방법론'은 1935년 Stephenson에 의해 Nature에 발표되면서, 이후 방법론적 가능성이 발표된 이후 인간의 심리적내면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왔다[13,16,17].

Stephenson(1968)은 Q방법론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이벤트의 탐구에 있어 환원주의(reductionism), 논리실증주의나 가설연역적 접근방법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벤트를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범주적, 판별적, 상호배타적 구조 속에서 다루기 때문이다.[16,17] 이러한 주장은 '양자이론(quantum theory)' 특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연구할 때, 복잡한 현상을 상호배타적인 혹은 폐쇄된 용어로 환원시켜서는 안된다는 '불확정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에서 출발하였다[16-18]. 즉, 경험적 측정도구의 역할은 새로운 가설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이며, 다면적인 가능성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어떻게 경험이 변화하는 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바로 주관성연구인 'Q방법론'은 이러한 경험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행동과학 속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으로써, 방법론적 지평을 열어준 것이다[17,19,20].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설검증연구(deductive study)' 이전에, '가설발견적 접근방법(abductive study)'으로써 Q방법론의 유용성은 더욱 강조되어져 왔다[14,21].

2.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빈곤'에 대한 인식의 진단에서 출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질적연구인 'Q방법'을 활용하였다. Q방법은 조사를 위하여 추출한 Q표본이 응답자들의 주관성에서 출발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여, Q모집단으로부터 분석을 위한 Q표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Q표본은 Q sorting이라는 분류과정을 통하여,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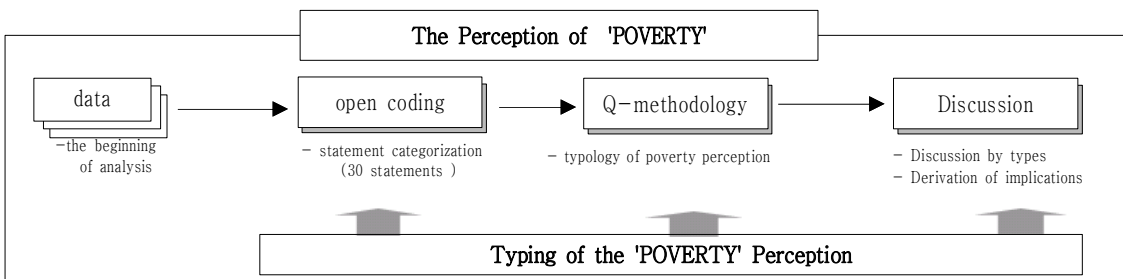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 Process

2.3 Q분석과정

2.3.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확보된 Q모집단은 코딩(coding)과정을 거치면서 대표성 있는 Q표본(Q-sample) 총 30개의 진술문을 선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Table 1. Q-Samples

1. 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16. distribution problem
2. Laziness	17. Unfree
3. Social Responsibility	18.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4. Individual Effort Problem	19. basic living supply and demand
5. Social Structure Problem	20. Unhappiness
6. Retraction	21. Incompetence
7. Public Enemy	22. Least Lives
8. No Money	23. low status
9. I Can't Work	24. starvation
10. The Problem of Mind	25. I'm not as good as others
11. Lack of Desire	26. No Study Chance
12. Income Inequality	27. Indifference
13. Loneliness	28. lack of support
14. Suffering	29. economic problems
15. Insufficient	30. Political Problem

2.3.2 P표본

선정된 Q표본 30개의 빈곤관련 인식용어는 어느 정도의 긍정과 부정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류과정인 Q분류(sort)실시하게 되며, 분류를 수행하는 응답자를 'P표본'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P표본은 20대에서 50대까지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2.3.3 P표본

선정된 Q표본 30개의 빈곤관련 인식용어는 어느 정도의 긍정과 부정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류과정인 Q분류(sort)실시하게 되며, 분류를 수행하는 응답자를 'P표본'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P표본은 20대에서 50대까지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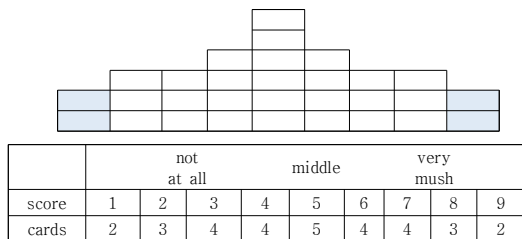


Fig 3. Q-sort & Score table

2.3.4 Q분류

Fig. 3은 Q분류(Q-sort)를 위한 분포틀이다. 본 분포틀은 좌우대칭적이며, 정규분포와 유사하다. 이는 Q방법이 계량연구에서의 중심극한이론에 근거한 $n \geq 30$ 의 가정이 불필요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16,22].

한편, Q분류 과정은 '강제분류(forced distribution)'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분류과정은 Q분석만의 특성이라 하겠다[20,21,23]. 또한, 분류된 Q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은 향후 양적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4,21].

2.3.5 자료처리 및 분석

앞서 실시한 Q-sort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Q분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바탕으로, 각 요인별 Q진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3. 분석결과 및 논의

3.1 유형화 결과

본 연구는 '빈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30명의 P표본과 30개의 Q표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4개로 유형화되었다.

Table 2는 유형별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빈곤'에 대한 인식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I> 13.77%, <유형 II> 14.94%, <유형 III> 12.3%, 그리고 <유형 IV>는 9.24%로 전체 50.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2. Variance Distribution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values	4.1318	3.9817	2.9899	1.8715
Var%	0.1377	0.1494	0.1230	0.0924
Cum.Var%	0.1377	0.2871	0.4101	0.5025

Table 3은 4개의 유형별 응답자인 P표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Type I>과 <<Type III>은 직장인 중심으로, <Type II>는 대학생중심으로 구성되었고, <Type III>은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Weight and Characteristics of P Samples

	Factor Weight	age	sex	job	Life
Type I	2.0037	48	M	celery man	low
	1.2453	36	F	celery man	middle
	1.1739	37	M	professional	middle
	1.1647	57	F	self-employed	middle
	.9535	26	M	celery man	middle
	.9036	49	F	celery man	middle
	.7037	26	M	celery man	low
	5866	33	F	celery man	middle
Type II	1.2136	22	F	student	middle
	1.1106	24	M	student	middle
	1.0121	21	F	student	middle
	.9605	32	M	celery man	middle
	.8381	51	F	celery man	middle
	.5483	25	M	celery man	middle
Type III	1.2401	46	F	public official	middle
	1.1979	31	M	celery man	middle
	1.0590	47	M	celery man	middle
	1.0079	55	M	celery man	middle
	.8672	36	M	celery man	middle
	.5661	24	M	student	low
	4573	36	M	celery man	middle
	.4008	36	M	celery man	middle
	.3617	35	M	celery man	middle
	3501	31	M	Tax Accountant	high
Type IV	1.1267	47	M	celery man	middle
	1.0858	47	F	social worker	middle
	1.0013	51	M	Tax Accountant	middle
	.9089	21	F	student	middle
	.7395	20	F	student	low
	.2045	25	M	student	middle

한편, Table 4는 각 유형별 Q표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진술문 분포를 바탕으로 유형별 명명을 실시하였다. 즉 <Type I>은 'Retraction type', <Type II>

Table 4. Statement Distribution

Statement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1. 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7	-1.9	.9	1.0
2. Laziness	1.3	2.2	1.3	-2.1
3. Social Responsibility	1.1	-1.0	-3	1.2
4. Individual Effort Problem	1.5	2.2	1.2	-1.2
5. Social Structure Problem	1.5	-1.3	.7	1.2
6. Retraction	1.8	.8	-1.1	.5
7. Public Enemy	-1.7	-6	-2.0	-1.1
8. No Money	-4	-3	1.2	.7
9. I Can't Work	-1	-8	.4	-2
10. The Problem of Mind	-1.1	.3	.0	-1.2
11. Lack of Desire	-8	-1	-1.0	-1.2
12. Income Inequality	.5	-8	-2	1.4
13. Loneliness	-1.9	-8	-4	-1.2
14. Suffering	-1.6	-7	.2	-2
15. Insufficient	-1.0	-1.2	.2	.4
16. Distribution problem	.0	-5	-1.2	1.7
17. Unfree	-5	.2	.3	-1.1
18.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8	.7	1.7	.7
19. basic living supply and demand	-5	-2	.6	1.0
20. Unhappiness	-8	.8	.4	-6
21. Incompetence	.3	1.9	-6	-1.1
22. Least Lives	.4	.3	1.2	1.3
23. low status	1.4	-8	-2.3	.2
24. starvation	.4	1.0	1.5	.5
25. I'm not as good as others	.4	-5	-3	.3
26. No Study Chance	.7	.1	-1.1	-8
27. Indifference	-7	1.1	-7	-1.1
28. lack of support	.1	.7	-6	-1
29. economic problems	.8	-2	.6	.7
30. Political Problem	-8	-6	-6	.3

는 'Individual Problem type', <Type III>은 'Basic Problem type', <Type IV>는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 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I	1.00	.21	.11	.27
Type II		1.00	.22	-.54
Type III			1.00	.14
Type IV				1.00

Table 5는 4개의 유형간 상관관계로, <Type II>의 'Individual Problem type' 과 <Type IV>의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3.2 유형별 분석결과

3.2.1 <Type I>, Retraction type

<Type I>에서는 'Retrac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Laziness' 등을 가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ype I>을 'Retraction type' 으로 명명하였다.

Table 6. <Type I> Q-Sample's Z-SCORES Distribution

Q-Sample	Z-SCORES
Retraction	1.77
Individual Effort Problem	1.52
Social Structure Problem	1.49
low status	1.38
Laziness	1.27
The Problem of Mind	-1.11
Suffering	-1.63
Public Enemy	-1.72
Loneliness	-1.88

3.2.2 <Type II>, Individual Problem type

<Type II>는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등에 대하여 가난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어, 'Individual Problem type' 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Type II> Q-Sample's Z-SCORES Distribution

Q-Sample	Z-SCORES
Individual Effort Problem	2.21
Laziness	2.20
Incompetence	1.90
starvation	1.07
Social Responsibility	-1.02
Insufficient	-1.20
Social Structure Problem	-1.25
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1.93

3.2.3 <TypeIII>, Basic Problem type

<TypeIII>은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No Money' 등을 강조하고 있어, 「Basic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Table 8. <TypeIII> Q-Sample's Z-SCORES Distribution

Q-Sample	Z-SCORES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1.71
starvation	1.49
Laziness	1.35
No Money	1.23
Individual Effort Problem	1.20
Retraction	-1.12
No Study Chance	-1.13
distribution problem	-1.24
Public Enemy	-2.02
low status	-2.27

3.2.4 <TypeIV>,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

<TypeIV>는 'Distribution problem', 'Income Inequality', 'Least Lives', 'No Money', 'Social Structure Problem', 'basic living supply and demand' 등의 자원배분 관련 정책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Table 9. <Type IV>Q-Sample's Z-SCORES Distribution

Q-Sample	Z-SCORES
Distribution Problem	1.74
Income Inequality	1.37
Least Lives	1.27
No Money	1.23
Social Structure Problem	1.20
basic living supply and demand	1.04
Indifference	-1.11
The Problem of Mind	-1.17
Lack of Desire	-1.18
Individual Effort Problem	-1.23
Loneliness	-1.24
Laziness	-2.06

3.3 논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하여 과연 21세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4개로 유형화되었고,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Type I>은 「Retraction type」으로, 응답자들은 주로 빈곤이란 'Retrac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Laziness'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I>는 「Individual Problem type」으로,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등의 Q표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II>은 「Basic Problem type」으로,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No Money'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V>는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으로 'Distribution problem', 'Income Inequality', 'Least Lives', 'No Money', 'Social Structure Problem'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병일(2013)은 빈곤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였다[6]. 즉,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및 소수민족 등의 사회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즉, 빈곤은 취약한 주거여건, 노숙인 등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및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 더욱 논의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빈곤의 완화와 퇴치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한 공공부조와 무엇보다 빈곤층을 위한 상실된 근로의욕 고취 및 워크페어(workfare)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Keith Payne(2017)가 말한 '불평등의 사다리'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다양한 부과 빈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상경(2016)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가난에 대한 사회적인 바른 이해와 태도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빈곤에 대한 국가의 제도 및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재검토 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5].

이러한 빈곤에 대한 인식이 빈곤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빈곤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자

1) 워크페어(workfare)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고 하여,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welfare to work'로 불린다[24].

출발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이유로 빈곤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Keith Payne의 '불평등한' 그 사다리에서 우리는 계속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도, 그렇다면 과연 '평등'은 선순환만을 추구할지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합리적인 평등' 또는 '합리적인 불평등의 세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4. 결론

'빈곤'이란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회구조에 '빈곤층'은 존재하였고, 그 '빈곤'은 우리의 일상 어느 곳에도 자리매김을 하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사회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빈곤의 그림자'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에 진단의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즉, 이러한 '빈곤'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빈곤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30개의 Q표본을 확보하고, 30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형화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각 유형별 설명력으로 <Type I>은 13.77%, <Type II>는 14.94%, <Type III>은 12.3%, <Type IV>는 9.24%로 전체 50.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둘째, 각 유형별 Q표본의 분포를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Type I>은 'Retraction type' 으로, 응답자들은 주로 빈곤이란 'Retrac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Laziness' 등으로 가난의 되물림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I>는 개인적인 노력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어, 'Individual Problem type' 으로 명명하였다. 즉,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등의 Q표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Type III>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Basic Problem type' 으로 명명하였다. 즉,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No Money' 등의 Q표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V>는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 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자원분배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유형 간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 <Type II>와 <Type IV>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빈곤에 대한 인식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여기서의 'Q방법론'은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인간의 내면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Q방법론은 '질적연구방법론(quality methodology)'으로, 일상의 현상 및 세계, 인물 및 사물에 대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전제로 현상에 대한 재구성 및 해석해야 하는 방법(method)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이라 하겠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련의 과정을 위하여 많은 연습과 학습을 통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주관성 연구인 Q방법론은 양적연구와의 교량적 역할의 유용성을 제고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로의 융합적인 확장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G. S. Her. (2002), *The History of Poverty and Welfare*, Hanwul Police Academy Series.
- [2] S. J. Lee. (2010), *The History of Poverty: Bronislaw Geremek*, Gi Pub.
- [3] Vetter & Reinhold. (2014), *Bronislaw Geremek : Der strategie der polnischen Revolution*. Herbert K pferling
- [4] P. Keith. (2017), *The Broken Ladder: How Inequality Affects the Way We Think, Live, and Die?*, Seoul : Penguin Books.
- [5] K. W. Kim. (2019), *The Theory of Poverty*, Seoul : Jungmin Pub.
- [6] B. I. Roh. (2013), *The Theory of Poverty*, Yangseuwon Books.
- [7] YTN. (2018. 3.12). *Poverty without Escape... Poverty Escape Rate after Financial Crisis '6%'*. YTN
- [8] OECD. (2009).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9] R. B Seebohm (2018),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10] T. S. Kim & B. D. Soun. (2016), *The Theory of Poverty*, Seoul :Hungji Pub.
- [11] T. W. Soun. (2009), *The Theory of Poverty*: Kawakami - Hasyme, Kuriye Books, 2009.
- [12] J. Y. Lee. (2018. 03. 12). *Poverty Escape Rate 6% after the Poor Financial Crisis*, MKnews.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3/159282/>

- [13] H. K Kim. (1992), The Understanding of Q methodology for Subjectivity Study,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6(1), 1-11.
- [14] D. H. Lee & D. K. Lee. (2007), A Abductive Approach on the Perception of the Accoun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by Applying the Qualitative Methodology,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12(1), 281-308.
UCI : G704-001804.2007.12.1.013
- [15] H. K. Kim. (2008), *Q-Methodology: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 [16] R. S. Brown.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Mass.
- [17] W. Stephenson. (1968), Consciousness Out-Subjectivity in. *The Psychological Record*, 18, 500.
- [18] W. Stephenson. (1961), Scientific Creed. Philosophical Credo. *The Psychological Record*, 11, 9-17.
- [19] R. S. Brow. (1997),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Q Methodology in Psych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Kent State University. Ohio.
- [20] J. N. Jeon. (2012), Twitter Users` Perception about New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via Twitter,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5, 195-216.
UCI : G704-001986.2012..25.009
- [21] D. H. Lee, H. J Park & W. S. Kim. (2019), The Typology of the Perception on Community Welfare using the Q Methodology,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9(3), 615-623.
DOI : 10.5392/JKCA.2018.18.03.320
- [22] H, K Kim & S. J Oh. (2008), A Study of Audience Typology toward Citizen Journalism,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2), 119-147.
UCI : G704-001525.2008.20.2.005
- [23] K. P. Sanders. (1974), William Stephenson: The Study of His Behavior. *Mass Communication Review* 2, 9-16.
- [24] B. I. Roh. (2017), *Social Security*, Knowledge Community.
- [25] S. K. Lee (2016), A Constitutional Approach to Poverty : Tasks to overcome the Poverty through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Limitation on the Fiscal Spending on Welfare Area, *Public Law*. 44(3), 27-59.
UCI : G704-000436.2016.44.3.009

이 도 희(Doh-Hee Lee)

[경력]



- 1990년 2월 : 충남대 경상대학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1994년 8월 : 충남대 경상대학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05년 8월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관리회계전공(경영학박사)
- 2012년 8월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특허법무학(법학석사)
- 2019년 8월 현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9년 8월 현재 :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관리회계, 사회복지학, 법학
- E-Mail : 2dohee@hanmail.net

김 기 운(Gi-Woon Kim)

[경력]



- 1993년 2월 : 충남대 농과대학 축산학과(농학사)
- 2018년 2월 : 충남대 농과대학 농업경제학(농업경제학 석사)
- 2014년 2월 : 건국대학교 축산경영유통경제(경영학박사)
- 2007년 8월 : 한경대 동물생명과학전공(이학석사)
- 2011년 2월 : 한경대 동물낙농생명과학전공(농학박사)
- 2017년 8월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8월 현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9년 8월 현재 : 농업회사 금갑(주) 대표
- 관심분야 : 농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 E-Mail : hongyunkim@naver.com